헤키간지 절(碧巖寺)

헤키간지 절(푸른 절벽의 절을 뜻함)은 조동종의 사원으로, 12 세기에 쓰인 중국 선종의 어록 『벽암록』과 연관 지어 이러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어록은 기쿠치에 지적 생활을 꽃피웠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쿠치 가문의 20 대 영주였던 기쿠치 다메쿠니(1430-1488)의 인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는 지역 문화에 힘을 쏟는 지지자였기에 무사나 마을 주민이 학문과 정신적인 부분을 탐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다메쿠니는 36 세에 영주의 자리에서 내려와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와이후에서 떨어진 언덕 기슭에 있는 암자에 칩거했습니다. 거기서 다메쿠니는 당시 일본 선학자 사이에서 특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공안(이야기, 문답, 질문) 어록인 『벽암록』의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다메쿠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속세를 떠나 지내던 곳은 헤키간지 절이라고 불리는 선종 사원이 되었습니다.

경내에는 다메쿠니 시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1996 년에 재건된 연못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정원이 있습니다. 또한 다메쿠니의 두 번째 묘인 공양탑이 있습니다. 다메쿠니의 본 묘는 기쿠치시 북부의 교쿠쇼지 절에 있습니다.